



서길암의 고려불교인물 <1>
선각 국사 도선(先覺國師 道諤, 827~898)

선종의 정신, 고려 창업의 기틀을 제공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힘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게 하고 각각 그 종파[業]를 다스리도록 하라. 뒷날 간신이 정치를 집권해서 승려의 청탁을 받아들여 각 종파의 사찰을 서로 빼앗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모든 사원은 다 도선(道諤)이 지정한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추종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국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짐은 훗날 국왕과 공후(公后)와 신하들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핏게하여 더 지을가 걱정이야. 신라 말 경쟁하듯이 사원을 창건하여 지덕이 쇠약하여 결국에는 멸망하였으니, 경계할 일이다.”(《고려사》 권2, 태조세가, 태조 26년 4월조)

대한민국 사람이려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고려 태조가 후세에게 남겼다는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다.

<훈요십조>는 고려시대를 관통했던 국가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가정신을 말하는 첫째 항목은 국가의 장엄이 부처의 은덕에 힘입은 것이며,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되 사원을 두고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둘째 항목은 지덕(地德)을 보존해 국가가 영속될 수 있도록 도선 국사가 정한 자리 외에 별도의 사찰을 더

창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고려 승려를 말함에 있어, 그 첫 번째에 선각 국사 도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도선 국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훈요십조>를 먼저 들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흔히 도선 국사는 ‘사탑비보설(寺塔碑補誥)’의 주창자, 바꾸어 말하면 한국적 풍수지리의 시조 정도로 여겨지는데, <훈요십조>의 이 같은 기록이 도선 국사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이다.

대개 이 기록을 접한 사람들이 느끼는 도선 국사에 대한 인상은 음양가(陰陽家)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절과 탑을 세워 산수(山水)의 형세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 땅의 덕(地德)을 보완한다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도선 국사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훈요십조>, 고려 태조가 자신들의 자손이 귀감으로 삼도록 했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앞서의 왕조인 신라가 망한 결정적 원인들에 대한 태조의 반성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신라 말 사원의 운영권을 두고 종파간의 다툼이 심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국가정신의 원형이 된 불교 교단 내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의 핵심은 왕족은 물론 대신귀족들이 함부



로 원당(願堂)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인데, 신라 멸망의 원인을 무분별한 원당건립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곧 무분별하게 원당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으로 도선 국사의 ‘사탑비보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6 - 마음의 두 얼굴: 불선과 선

선과 불선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수이고 어떤 것이 나쁜 수 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반드시 바둑의 정석을 배워야 한다. 정석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수순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익힌 다음 바둑을 두면 나쁜 수를 줄이고 좋은 수를 많이 두게 되어 결국 바둑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바둑을 두면 나쁜 수를 좋은 수로 알거나, 좋은 수를 나쁜 수로 알아서 바둑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에 유익한 마음과 행복한 삶에 해로운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인 삶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 행복한 삶에 유익한 마음을 선(kusala), 옹한 마음이라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통하여 행복한 삶에 해로운 마음을 불선(akusala,不善)한 마음이라 한다.

결국 삶의 정서이란 선과 불선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이를 세속의 정견(正見)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안정되게 하고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찾게 해준다. 선한 마음은 알아차림(sati)을 바탕으로 한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에는 알아차림이 있다. 왜냐하면 왜곡이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선한 마음인데 알아차림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상에 대한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대상 자체와 만나게 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즉 본질적으로 행복한 것은 행복으로, 괴로운 것은 괴로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게 한다. 이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데 유익한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 한다.

선한 마음은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대상의 본성을 꿰뚫어 아는 지혜,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털어주고자 하는 연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다. 이상의 마음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

착하지 않은 마음은 세상 왜곡시키고

선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세상 보게 해

불선한 마음은 대상을 잘못 아는 어리석음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탐욕이나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난다. 탐욕에 바탕을 둔 마음은 대상을 집착하는 탐욕, 그릇된 이치를 고집하는 사건, 자신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집착하는 자만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냄에 바탕을 둔 마음은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질투, 자신의 성공을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여 번민하는 후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선한 마음은 행복의 내용을 왜곡시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매우 불안정하고 위협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마음은 우리를

게 해주는 선한 마음이 된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보시, 마음을 잘 단속해 악행 하지 않도록 하는 계율수행, 집중력을 기르는 선정수행,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수행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불선한 마음은 세상을 왜곡해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고, 선한 마음은 세상의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진정한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이해한 후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바른 수행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일목 스님(계따와나 병배선원장)

경 봉 스님이 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⑦

10년의 공부가 헛된 것이라니, 무엇이 문제인가?

만봉 선사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어머니로부터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생활한 것에 크게 야단을 맞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중노릇 잘하는 것인가?” 하고 곰곰히 생각하던 중 영혼을 천도하고 각종 불공을 집전하는 의식승(儀式僧)이 고승의 모습으로 부각됐다.

아들은 아버지의 천도(薦度)를 염두에 두면서 그날부터 10년 동안 각종 법패(法牌)와 영산작법(靈山作法) 등의 의식을 익혔다. 어느 날 큰 재(齋)를 열게 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모셨다. 큰 고깔에 가서 장삼을 입고 영산작법을 멋있게 집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달려들어 지팡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놈, 아버지를 천도하고 제도해 달랬더니 무당노릇 하려고 절에 들어 왔느냐!”

어머니의 뜻을 몰라 크게 당황한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참된 중노릇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며칠을 생각하다가 설법을 잘하는 강사(講師)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류 강사스님을 찾아갔다.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까지를 모두 배워 마치고 이름 있는 강사가 된 뒤,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모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절 입구까지 가서는 극진히 환영해 모

셨지만, 막상 불경을 가르치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크게 나무랐다.

“글 배우고 글 가르치려면 속세에서 할 일이지 무엇하러 절에까지 와서 야단이나!”

‘십년의 법패 공부, 십년의 불경공부가 모두 헛된 공부라니? 무엇이 문제인가?’

또 다시 고민하던 아들은 <진동록>과 <선문염송>을 펼쳐보았다. ‘아하! 중노릇 잘하는 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아들은 ‘자성(自性) 자리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1년이 지난 뒤 어머니는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찾아 나섰다. 제자들로부터 ‘혼자 산 속으로 가더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부터 어디엔가 아들이 있을 그 산 속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굴 안을 들여다보니 산발한 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에는 땀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하여 불품은 없었지만 틀림없는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통곡했다. 선정(禪定)에 잠겨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도를 깨쳤고, 어머니는 선정에 잠겨 있던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 눈에서 뿜어 나오는 형형한 안광(眼光)을 보고 도를 깨쳤다. 모자가 함께 도를 깨친 것이다.

이야기를 끝낸 만봉선사는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발심(發心)이 제대로 되었으니 변치 말고 공부 잘 해 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셨다. 짙막한 도담(道談)한 편과 한마디의 격려였지만, 스님은 만봉선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다.

경봉 스님은 훗날 회고하시기를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도 참되어 중노릇을 잘하여 기필코 도를 깨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게 자리를 잡았고, 온 몸에는 새 기운이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고 하셨다.

만봉 선사로부터 이러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스님이셨기에 80의 고령에도 스님은 밤을 새우며 정진하시며 참선수행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선방(禪房) 수좌들이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에 들어가거나 세 시간만 자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이 시작되면 스님은 수좌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밤새 헛기침을 하시거나 한밤중에 과자 봉지를 들고 선방으로 찾아가 시곤 했다. 조는 사람의 등을 두드리 주고, 과자를 나누어 주시면서 간단한 선문답과 격려의 말씀을 들려 주시며 절차탁마(切磋琢磨)해 주셨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 협회 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까지(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 치유 :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당사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패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황사 악사요...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